

‘진정일 교수, 시에게 과학을 묻다’

진정일 지음

풍부한 감성을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게 시라면 과학은 방찰함과 합리적 이성의 으뜸. 그만큼 서로 어울리는 구석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아무리 융합·통섭의 시대라고 하지만 시와 과학을 한 데 엮어내기란 쉽지 않을 듯하다.

‘시에게 과학을 묻다’의 저자인 진정일 한국과학문화교육단체연합회장은 명쾌하다. “‘시’와 ‘과학’은 창조로 통한다”고 답한다.

이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듯 책은 딱딱한 과학이야기를 부드럽게 풀어가기 위해 다양한 시를 끌어들이고 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에서 ‘왜 하늘은 푸를까’, ‘은하수는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설명하는 식인데, 시와 과학 사이를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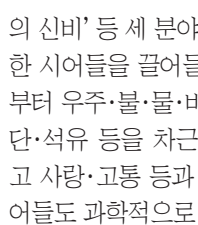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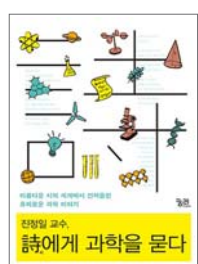
예를 들면 ‘그 여름날/열정의 포플러는/오허려 창공의 푸른 깃가슴을/어두만치려/팔을 펼쳐 흔들거렸다./붉은 태양 그늘 좁다란 지점에서’라는 윤동주의 ‘창공’이라는 시를 인용하다가 ‘붉은 태양’이라는 표현에 밑줄을 긋더니 ‘태양이 붉었다면 과연 액체 상태라는 말인가’부터 다양한 ‘과학적 의문’을 던지고 설명을 자세히 풀어놓는 것이다.

허수경의 ‘열을 세계’라는 시의

후반부를 옮겨적은 다음 ‘차가운 물이 끓어 열음으로 변하는’으로 쓰인 문구를 들며 ‘차가운 물이 끓을 수 있을까’를 놓고 그래프까지 그려가며 꼼꼼할 정도로 설명한다.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던지면서도 답변은 액정 고분자 분야의 권위자답게 과학적으로, 비율과 질량, 부피 등을 외우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세밀하게 기록하며

‘시’와 ‘과학’은 창조로 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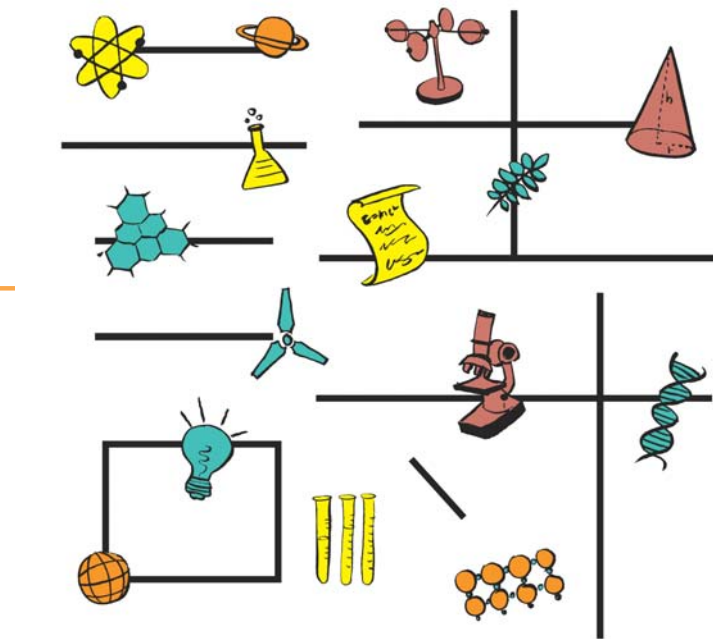
이상화의 ‘단조’, 김동환의 ‘국경의 밤’, 한용운의 ‘거문고 탈때’

설명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내용을 ‘우주의 비밀’, ‘사랑과 인생의 아름다움’, ‘자연의 신비’ 등 세 분야로 나눈 뒤 다양한 시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원소에서부터 우주·볼·물·바람·꽃·나무·비단·석유 등을 차근차근 풀어 나가고 사랑·고통 등과 같은 추상적 시어들도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사람이라는 감정이 생겨나기까지 겪게 되는 특징들을 ‘본능적 욕



등에 등장하는 ‘소리’를 거론하며 소리 전파, 전달 속도 및 크기, 소리 파의 사인곡선, 진동수 등을 들어가며 시와 과학을 어우른다.

‘산중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자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사람이여’라는 문구가 들어간 김소월 시인의 ‘초혼’과 ‘몸부림쳐도 소용없는/사랑이라는 것을 서로 알면서도/젊음의 농동자는 막지 못하는 것’이라고 쓴 박인환의 ‘이국향구’에 쓰인 ‘사랑’의 의미 등은 단순한 과학 지식 나열에 머물지 않는다.

사람이라는 감정이 생겨나기까지 겪게 되는 특징들을 ‘본능적 욕

구, 이끌림, 열정, 집착’이라는 4단 계로 나누고 쾌감의 화합물이라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페닐에틸아민’ 등을 들어 소개하면서도 사랑의 인문학적 의미까지 비교하기도 한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인문학적 감성과 자연과학적 냉철함을 조화롭게 풀어내는 저자의 도전은 일단,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시어가 갖는 함축미를 음미하는 것 보다는 과학적 설명에 집중해 책장을 넘기는데 다소 힘이 들법하다.

〈공리·1만3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공포에 직면한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

‘안 그러면 아비규환’

닉 혼비의 지음



책은 스타 작가 20명이 저마다의 시선으로 바라본 공포의 본질과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을 빼곡히 담았다.

얼마 되지 않은 돈을 주고 산 중고 비디오로 ‘지구 멸망’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되면서 그려지는 내용을 담은 닉 혼비의 단편 제목인 ‘안 그러면 아비규환’을 비롯해 스티븐 킹의 ‘그레이트 덕’ 이야기, 마이클 크라이튼의 하드보이들 심리소설 ‘핏물이 빠지지 않는다’,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이기심이 엿보이는 데이브 에거스의 심리 미스터리 ‘정사에서 천천히 내려오다’ 등은 여름 무더위를 잊을 정도로 책장이 쉽게 넘어간다.

〈틀·1만98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족주의를 넘어 열린 한글 사용을 생각한다

‘한글민주주의’

최경봉 지음



‘멘붕’ 등의 인터넷 용어가 한글을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외래어를 그대로 쓰지 말고 고유어를 바꿔야 한다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저자는 “문자 선택의 정당성은 대중의 수용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으며, 문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적 원칙”이라고 설명한다.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는 점에서 언어와 문자는 해당 공동체 구성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회생활의 도구이기에 언어와 문자의 선택과 유지에는 구성원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저자 주장이다.

광화문 현관에 새겨진 정치 역사를 살펴보면 한글과 한자의 위상 변화를 다룬 점도 눈길을 끈다.

〈책과함께·1만3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비판·반성·대안... 진보적 정책의 길

‘지금여기의 진보’

홍세화 외 지음



지금 진보는 잘하고 있는 것인가. 진보의 위기, 무능한 진보라는 말이 흔하게 사용되는 시기, ‘지금여기의 진보’는 진보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다. 문지문화원과 출판사가 공동으로 기획했던 ‘지금-여기의 진보:2012년 진보를 다시 묻는다’라는 인문 특강을 엮은 것으로, 정당 정치와 경제·환경·노동·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주제에서 진보에 대한 비판과 반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홍세화씨를 비롯, 이택광 문화비평

참여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진보적 시각을 드러낸다.

신자유주의 체제로 인해 드러나는 현 사회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만 보이는 진보 진영의 움직임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방향 정립을 위한 진보적인 기획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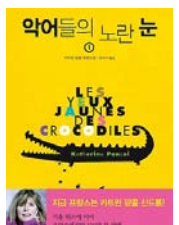
〈이음·1만4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자들의 삶 고민 그리고 홀로서기

‘악어들의 노란 눈’

카트린 팡골 지음



프랑스 인기 작가 카트린 팡골의 소설로, 2006년 출간된 뒤 프랑스에서만 100만부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에 오르는가 하면 전 세계 31개국에서 번역됐다.

‘악어들의 노란 눈’은 못생기고 뚱뚱하고 자신감 없는 ‘얼뜨기 주부’ 조제핀과 모든 것이 완벽해보이지만 공허함에 시달리는 언니 이리스, 두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 참다운 삶을 발견해나가는 여자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주인공을 채택해 삶에 대한 불만과 고민을 현실성 있게 그려내 ‘바로 내 이야기’라는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언니의 제안을 받고 소설 쓰기를 시작하면서 변화 없이 되풀이되는 일상에 지쳐버린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찾아 가는 과정이 재미있게 그려지고 있다.

〈문학동네·각 권 1만35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숨길 수 없는 ‘욕망’ 그것들을 보여주는 ‘신드롬’

‘크로스 시즌 2’

진중권·정재승 지음



지난해와 올해 우리나라를 강타한 ‘나는 가수다’와 오디션 프로그램, 팟캐스트의 위력을 보여준 ‘나는 꼼수다’, 세상을 바꾸어 버린 ‘트위터’ 등을 두 사람은 다양한 스타일의 글쓰기로 보여준다.

또 ‘어린이들의 대동맹’으로 군림중인 ‘뽀로로’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K팝’,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내한공연을 진행했던 ‘레이디 가가’, 영화 배우 ‘고현정’ 등도 만날 수 있다.

‘4대강’ 등 정부를 꼬집는 글이나, ‘겁라면’, ‘낙서’, ‘라디오’, ‘키스’ 등 일상에 대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흥미를 돋운다.

〈웅진지식하우스·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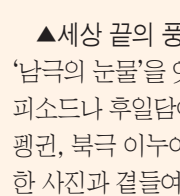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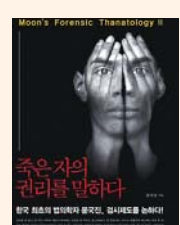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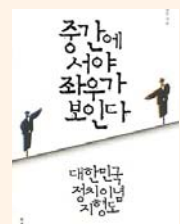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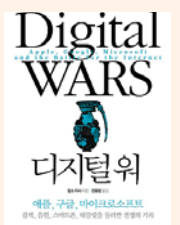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간

▲나는 상처를 사랑했다=실천시인의 200호 기념 시선집. 28년간 한국 리얼리즘 시가 걸어온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최두석 시인과 박수연 문학평론가가 개별 시집들에서 대표작 1편씩 엄선해 128편을 시대순으로 수록했다. 1980년 광주 민중항쟁을 다룬 김준태 시인의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김남주 시인의 ‘학살 1’, 박선욱 시인의 ‘광주 2’를 비롯, 도종환 시인의 ‘점시꽃 당신’, 신경림의 ‘가난한 사랑노래’ 등 실천시선을 통해 나온 시들이 실렸다. 〈실천문학사·1만원〉

▲내 마음 속 시크릿 여행=남해의 아름다운 풍경과 삶의 소박함을 엿볼 수 있는 여행서. 여수박람회와 펼쳐지는 여수 앞바다를 비롯해 광양·구례·고흥·보성·담양·강진·해남·영광 등 남도의 풍광이 사진 속에 오롯이 담겨 있다. 저자는 여행을 통해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편안함을 주는 메시지를 전한다. 〈RHK·1만6800원〉

▲디지털 워=검색·음원·스마트폰 같은 정보기술(IT)은 기업까지 벌인 치열한 경쟁 덕분에 발달을 거듭했다고 분석한 책으로, 영국 가디언지의 IT 전문가인 찰스 아서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IT 기업들이 승리를 위해 벌인 격렬한 전투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제리 양 등 IT 대명사들이 어제의 적을 오늘의 친구로 삼으며 세계무대를 호령했던 뒷얘기도 곁들였다.



▲중간에 서야 좌우가 보인다=이진우 포스트 석좌교수가 정치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건강한 ‘정치적 중도문화’를 꼽고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건강한 정치적 중도 문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책에는 좌·우 구별을 분명하게 요구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통해 좌파와 우파의 정치적 지형을 그려보으로써 정치가 궁극적으로 ‘중도를 위한 싸움’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책세상·1만3000원〉

▲죽은 자의 권리를 말한다=국내 최초의 법의학자로 꼽히는 문국진 고려대 명예교수가 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사례를 들어 국내 검시제도의 한계와 법의학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검시제도가 오랜 무관심 속에 방치돼 허술한 과거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사후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쓴소리를 쏟아내면서 전문 법의학자 양성 및 급속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1만4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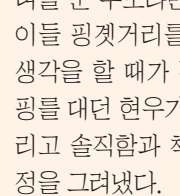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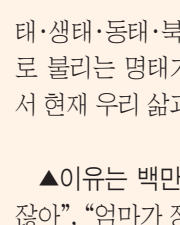
▲세상 끝의 동경들=MBC다큐멘터리 ‘빙하’와 ‘아마존의 눈물’, ‘남극의 눈물’을 잇달아 찍은 김만태 촬영감독이 쓴 책으로, 방송에 피소드나 후일담이 아닌 여행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남극해 펭귄, 북극 이누이트 전통축제 등 쉽게 접하기 어려운 광경을 생생한 사진과 곁들이 정리하고 있다. 〈드인들·1만3000원〉



▲귀염둥이 아니면 어때?=초절정 귀염둥이 오로로와 내로라하는 말쑥쟁이인 쥘 등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발산하지 못했던 두 아이의 긍정적 변화를 담았다. 아이들의 개성과 본성을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아이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엿볼 수 있다. 〈한림출판사·9500원〉

▲대이동, 동물들의 위대한 도전=사막·초원·바다·하늘 등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동물들의 대이동을 담은 책으로, 가장오리·제왕나비·바다거북·귀신고래·순록 등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혹독한 자연환경에 맞서 시련을 이겨내는 동물들의 의지와 생명력을 보여준다. 대자연의 웅장함과 살아간다는 것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는 책이다. 〈창비·1만1000원〉

▲땅에서 찾고 바다에서 건진 우리 역사=우리나라 땅과 바다에서 이뤄진 13가지 발굴 이야기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풀어냈다. 선사시대 쓰레기장, 바다속에서 건져올린 보물



선의 정체 등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사례를 중심으로 유물과 유적의 의미, 중요성을 일깨운다. 〈책과함께아름아·1만1000원〉

▲명태를 찾습니다=‘국민 생산’으로 불렸던 명태가 지구 온난화와 남획으로 더 이상 동해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태를 꼬집고 문명의 이기를 쫓는 현 세대에 대한 고민을 던진다. 명태가 ‘산태’로 불렸던 사연을 비롯해 명태·생태·동태·북어·노가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명태가 어떤 물고기인지 설명하면서 현재 우리 삶과 문화에 대해 조망한다. 〈미래아이·1만1000원〉

▲이유는 백만가지=“아빠 때문에 늦잠 잤잖아”, “엄마가 정리하면서 잊어버렸잖아”. 자녀를 둔 부모라면 무궁무진할 정도로 많은 아이를 핑계거리를 듣다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무슨 일만 생기면 매번 핑계를 대던 현우가 남 탓과 변명하는 습관을 버리고 솔직함과 책임감의 중요성을 깨닫는 과정을 그려냈다. 〈좋은책어린이·8500원〉

어린이 책꽂이